

투데이 칼럼

김정은과 김여정의 연설

북 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연설을 놓고 역할 분담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오후에는 주로 '격려'를 하는 반면 동생은 '박탈'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 방역전에 투입됐던 군인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을 들어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가 자주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 듣는 이들의 기습을 끌릴 만큼 연설 습씨가 아주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최근 첫 육성 연설이 공개돼 주목을 끌었다. 특히 대남 메시지를 전할 때는 오빠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강경한 어조여서 더욱을 집중시켰다.

격려와 박탈, 생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한 최고지도자 남매의 육성 연설을 통해 북한은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사업에 투입됐다가 귀대한 북한 군인들이 한자리에 집결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20여 분에 걸친 육성 연설에 나섰다.

미안함에 이어 고마움까지 거듭 강조하며 감성적으로 이어진 연설문이었다. 김 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군인들은 집중했고, 일부는



정복규
논설위원

눈물까지 흘렸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부녀자 내리는 마음", "속 타들던 순간" 등으로 솔직하게 표현했다. 북한 체제에서 최고지도자의 육성 연설이 가지는 힘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육성 연설을 통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주민 결속을 도모했다. 그러나 당시 김 위원장은 20분 남짓한 연설문을 여유 없이 읽기에 바빠 보였고, 시선 처리도 어색했다. 연설을 끝낸 직후에도 위치를 잡지 못하고 서성이느 모습이었다. 그 데도 집권과 함께 빠르게 선보인 점은 지도자의 육성 연설은 주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육성 연설도 공개돼 관심이 집중됐다. 김정은 위원장

이 내부를 다독이고 격려하는 것과 달리, 김 부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원인을 추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김 부부장은 남족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거론했다. 이어진 담화에선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은 서슴지 않았다.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문은 북한의 이전 정통 담화문들에 비해 유난히 거칠고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보니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국제사회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2017년에 전쟁 위협이 고조됐고 2018년에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됐다가 2019년 하노이에서 노ಡ이란 큰 실망으로 끝난 것을 한번 경험했다.

따라서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같이 향후 미국과 한국과 협상을 통해 북한의 행보가 엇박자기 나게 된다. 때로는 주민을 한데 묶고 때로는 강력한 대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은 한층 그 솜씨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김여정 부부장까지 공개 연설에 나섰다. 북한 최고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더 활용할지, 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는 어떻게 평가할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임실 소총사선문화제 양영두 위원장

2022년도 사선문화제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민관광지 사선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선문화제는 사선선녀 신위제, 제31회 소총·사선문화상 시상, 제36회 사선녀 선발 전국 대회를 열었다.

풍년맞이 김놀이 공연, 국악 공연, 농민 위안 축하공연도 기획했다. 사선녀 응모는 전국에서 접수받았으며 응모자들은 만 17세 이상 27세 미만의 미혼인 대한민국 여성이다.

양영두 위원장은 "광복 77주년을 맞아 코로나19를 이겨낸 위대한 문화 국민을 위한 향토문화 축제를 개최했다"며 "한류 문화가 세계를 압도하듯 새롭게 도약하는 사선문화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소총·사선문화상 대상 수상자는 이향증 신홍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가 선정됐다. 그는 일정 초대국무원이 상용 선생의 증손으로 경북 안동 일청각을 지켜냈다.

특별상은 최완규 전 마한백제

문화연구소장이 받았다. 부문별 수상자는 △문화예술 박명성 (유신시컴퍼니 예술총감독) △언론 박승준 아주경제 논설 고문 △모범공직 김성 전남 장흥군수 △교육 김윤자 전 전주 아중중 교장 △농업 안승일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총장 △경제 이오순 농업법인 이삭 대표 이사 △향토봉사 임인규 전주 농업협동조합장 등이다.

한편 양영두(梁永斗) 위원장은 1987년 제1회 사선문화제를 시작으로 30년째 소총사선문화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자신의 고향인 일성군 관촌의 사선대 (四仙臺)를 널리 알리고자 순수 민간 주도의 지역문화제인 사선문화제전을 창설했다.

소총·사선문화제는 구한말 전북에서 거병한 이석용 의병장과 휘하 의병 28명 의사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제례를 지내는 '소총제'와 하늘에서 사선녀가 내려왔다는 전설을 기리는 '사선제'를 합친 축제다.

형제복지원 사건

최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91명에 대한 1차 진실 규명을 결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갇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곳에서는 1975년부터 1988년까지 657명이 숨졌다. 애간에 원생 1백80명을 강제 노역시키기 위해 죽사를 개조하고 탈출을 막기 위해 쇠창살 속으로 이용했다.

수용인은 감금상태에서 강제 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다. 당시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정화'가 목적이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집 않은 어린 아이처럼 훈령의 실적 채우기를 위해 두고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2만~3만 명의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감금됐다.

형제복지원에서 갑금생활을 했던 이들은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죄가 없었다. 수감자 대부분은 형제복지원을 나온 뒤 고통을 이기려고 술과 약에 의존해 살고 있다. 진상 규명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생존자 11명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눈물로 호소하며 삐발을 했다.

생존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다. 이들이 모욕당하고 자유로운 박받을 이유는 없다. 판결도 없이 감금된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국가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학생 43명 실종 사건 규명 요구하는 멕시코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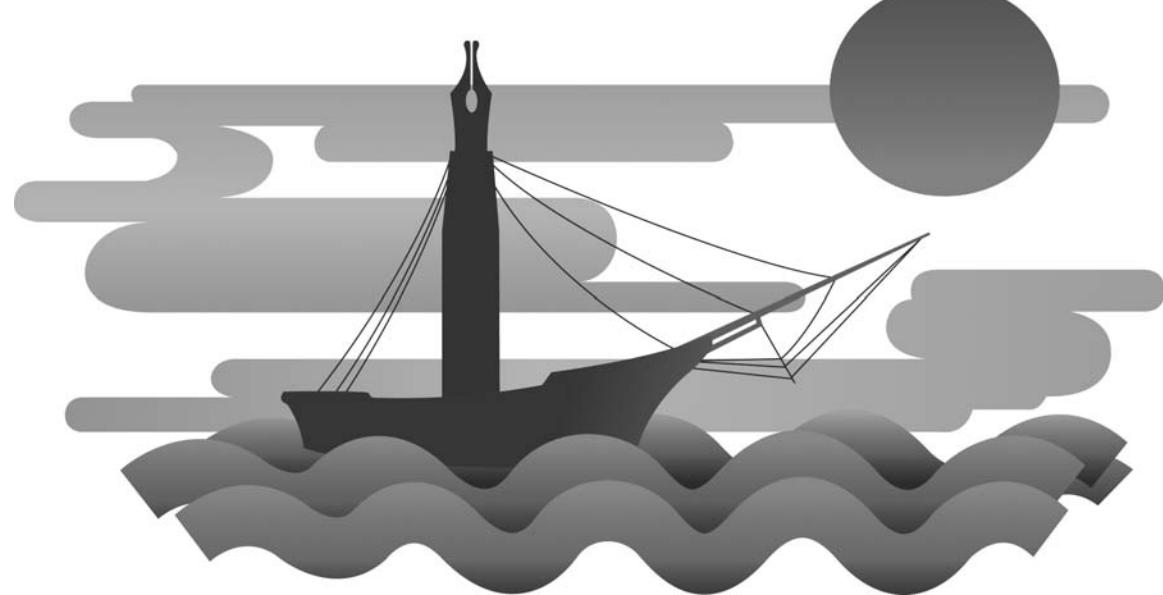


지난 22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경찰총장 집무실 밖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시위대는 2014년 사범대학 학생 43명 실종 사건 8주년을 앞두고 행진하고 있었다. 한편 멕시코 1심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포로 교환으로 석방된 우크라이나 군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으로 석방된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 시립병원에서 V를 그리고 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